

# LOCAL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 함평 시골마을, 청정 예술 마을로 재탄생

### 화순, 군민행복 아카데미 개최 25일 권일용 교수 강사 초청

화순군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범죄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권일용 교수가 '프로파일링과 마음 치유, 소통의 심리학'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다년간의 프로파일링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심리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유와 공간의 가치를 군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권 교수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원 겸임교수, 한국KCSI학회 법심리분과위원장, 그리고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의 범죄심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로서, 다수의 강력 사건을 분석하며 한국 범죄심리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 맛들무안물, 양파 기획전 군, 30% 할인 판매 진행

무안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맛들무안물'에서 진행 중인 '양파 소비촉진 특별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본격적인 중단생종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 시작됐으며, 단 4일 만에 28t 이상의 무안양파가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파 소비촉진 기획전에서는 총 6748건, 33t의 양파를 판매하며 행사가 조기 종료, 양파 기획전에서 총 61t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김산 군수가 주재한 양파 수급안정 긴급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으로, 군은 농산불가적안정기금 2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무안양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양파 30% 할인 혜택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무안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번 기획전에 군민과 전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산내리·잠월미술관, '청정전남 으뜸마을' 업무협약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돌입...“예술이 일상 공간으로”

함평 해보면 산내리가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정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딘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 산내리 마을과 지역 문화공간인 잠월미술관이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본격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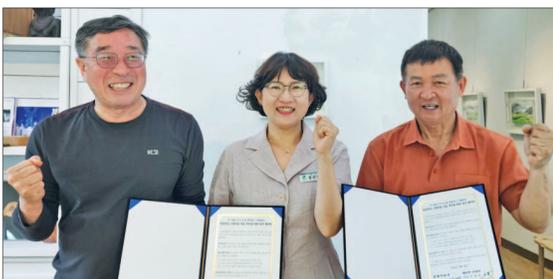
앞서 산내리는 지난해부터 정례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이장·반장·부녀회장·미술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오름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조직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과 환경 정비를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같은 해에는 마을 입구에 연산홍을 심으며 마을 경관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마을 자원과 예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마을가꾸기 사업에 예술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내리는 잠월미술관과 협업체가



해보면 산내리 마을과 지역 문화공간인 잠월미술관이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보면 산내리 마을과 지역 문화공간인 잠월미술관이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을 전체를 '야외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산내리 프로젝트'를 통해 벽화 꾸미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의 정체성을 예술로 재해석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마을 재생 모델로 전국으로 확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광연 산내리 이장은 "마을을 가꾸는 일이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로 확장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광옥 잠월미술관 관장은 "예술이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주민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산내리가 청정전남 으뜸마을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최일환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공직자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생활인구 증대 캠페인'을 열었다.

## '생활인구 50만 영암시대' 공직자가 선도

### 군, 생활인구 증대 캠페인·전문가 초청 특강 등 진행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공직자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생활인구 증대 캠페인'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영암군 정례초회와 함께 '생활인구 50만 시대' 전략의 하나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생활인구 전문가 조희정 더가능연구소 부대표 특별강연, 공직자 인구문제 인식개선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됐다.

군이 지역 활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에 관광·업무·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체류형 인구

를 포함한 개념이다.

우승희 군수는 "사람들이 영암과 얼마나 자주, 어떻게 관계 맺는가가 영암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생활인구 확대는 새로운 인구정책이고, 영암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강연에 나선 조희정 부대표는 '관계인과 만드는 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영암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생존전략인 '관계인구 형성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단순한 인구 유치를 넘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

성화 방안을 전달해 공직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영암군은 캠페인에서 전체 공직자가 참여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설문조사'도 실시. 인구감소의 원인과 영향, 필요한 정책 유형, 인구정책의 체감도 등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부서별 생활인구 과제 발굴, 맞춤형 정책 홍보 자료 개발 등에 활용된다.

우 군수는 "공직자들이 먼저 준비하는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자"며 "작은 관계에서 큰 인연까지 영암과 연결된 전국 사람들을 영암생활인구로 만드는 실천방법을 각 부서별로 만들어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강진 오감누리타운서 '감성 피크닉'

### 14일 체험행사...전 세대 아우르는 프로그램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강진읍 오감누리타운 일대에서 '2025 오감통의 다(茶) 정한 피크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강진의 차분화와 고려 역사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오감누리타운의 공간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오감통의 다(茶) 정한 피크닉'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주제로 강진만의 감성 차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가족 단위는 물론 청소년, 중장년층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오감누리타운 광장과 잔디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오감누리타운 일대에서 오감누리타운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문화 체험 '다정한 피크닉', 고려의상 체험, 막대인형극, 마술 공연, 별문소 등 문화공연, SI 가족송 제작,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오감통 사진관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 35가구에 피크닉 바구니, 다식 세트, 강진 차 세트 등이 제공되며, 감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강진=이진복 기자 sa4332252@

## 곡성, 2035 경관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11일 곡성을 행정복지센터는 곡성, 방방곡곡'이라는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경관여건, 군이 지향하는 경관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계획 수립 과정을 군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의 경험과 시각이 더해질 때 실용성 있는 경관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도용  
친환경  
자원순환성형상

30th 광남일보 창사를 축하합니다

## 진양기업은 최상의 제품을 광주·전남지역 상수도 배관자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량계 보호통

- 수량계 보호통 제조판매
- HP에폭시 조인트
- 다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류
- 원형맨홀(648) 제수변 철개류
- 소프트실 제수밸브 및 새물분수전
- 기타 상수도 기자재 일체

### 지수전 보호통

지수밸브 13-50A까지 사용가능

일반형

동파방지형

스테인리스유니온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의 상수도 급수관용 자재 계약 및 납품
- 수량계 보호통 직접생산 확인
- 여성기업 인증
- 수량계 보호통 위생안전기준 인증(KCW-2017-0075)
- 환경표지인증 (제18162호, 인증사유:자원순환성형상)

### 진양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동로37 (월전동)  
대표전화. 062-946-0110 / FAX. 062-368-9919  
(주)남형산업 **상수도 기자재 전문업체**